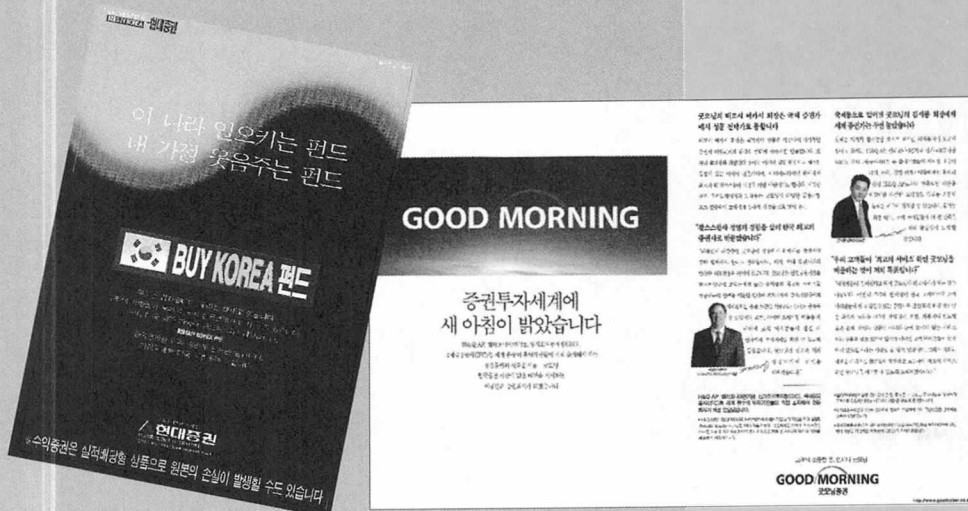


증권가는 지금 '굿모닝'

재테크 전략은 책에서부터

마정미
광고평론가

최근 증권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하지만 서점가로 눈을 돌리면
그 관심을 충족시킬
다양한 책을 만날 수 있다.



경기 침체에도 증권사 광고는 3배 이상 늘었다. 현대증권(왼쪽)과 쌍용투자증권의 광고.

모일간지의 TV광고 하나. 전형적인 전업 주부가 커리어 우먼의 당찬 재테크 전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고개는 끄덕이되 알아듣지는 못하는 분위기. 눈을 껌뻑껌뻑하다 옆사람에게 조용히 묻는다. “근데 코스닥이 뭐예요?” 광고는 “힘내라 이준마”라는 카피와 함께 정보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사의 신문을 구독하라고 마무리된다. 웃음을 머금게 하는 광고지만 한편에는 서글픔이 남는다. 코스닥을 모르는 것은 이준마만이 아니다. 그런데 코스닥을 모르면 퇴물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주가 상승은 연일 투자자를 흥분시키고 있다. 주식투자는 돈 있는 자들의 일이라고 무관심한 사람도 많지만 일반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최근의 특징이다. 어느새 증권사의 광고도 많이 늘었다.

증권사의 광고전쟁에 선전포고 격 역할을 한 것은 현대증권의 ‘BUY KOREA’ 광고, 마치 국가홍보광고 내지 공익광고같은 거창한 애국심 광고의 형식을 띠고 있다. 사람들이 CM송을 거의 외우게 될 만큼 대량의 광고매체비를 쏟아붓고 있다. 실제로 현대증권은 광고집행 이후 소비자로부터 높은 선호도와 수탁률을 얻고 있다고 한다.

최근 가장 활발한 광고를 보이고 있는 곳은 쌍용의 굿모닝 증권이다. 쌍용투자증권에서 굿모닝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 브랜드 고지외 CI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탁월한 브랜딩과 기업

이미지 향상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다. ‘굿모닝’은 증권가에서는 아침 객장에서 주고받는 인사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네이밍. TV광고 첫 편은 밤늦게 퇴근하던 남자가 증권뉴스를 듣고는 기뻐서 “굿모닝”이라고 외치는 광고다. 꾸벅꾸벅 졸던 닭이 이 말에 놀라 “꼬끼오”라고 외치지만 실수를 깨닫고 도망친다는 내용. 2편에선 석양 무렵 한 남자가 핸드폰으로 자신의 투자종목이 상한가라는 말을 듣고 기뻐서 역시 “굿모닝”이라고 외친다. 뉘엿뉘엿 넘어가던 태양이 이에 놀라 불쑥 다시 올라오다 머쓱해 한다는 설정.

그밖에 LG증권은 재테크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가수 김창완을 모델로 내세워 안심하고 맡기는 ‘LG증권’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삼성증권은 부자간의 다정한 대화를 통해 투자의 안전성을 강조한다. 세종증권은 ‘사이버월드’라는 홈트레이딩 서비스와 무선 통신 주문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개그맨 남희석을 기용, 1인3역으로 비교우위를 보여준다. 신홍증권의 ‘NET STOCK’ 신문광고는 재미를 주인공으로 구성했다. 소액투자자를 상징하는 개미군단의 이름은 ‘개미’와 컴퓨터 ‘Enter’ 키의 두 가지 뜻을 합축한 안터(Anter)다.

이렇듯 활발한 주요 증권사 광고는 경기침체

에도 불구하고 높은 광고비 지출을 보여 이미 전년의 3배가 넘는다고 한다. 퇴출사의 고객 유치와 자사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미지 광고가, 증시가 활황을 보이자 ‘뮤추얼 펀드’ ‘블루칩 펀드’니 하는 상품광고전으로 불길이 번진 것이다. 이들의 상품은 유형의 제품이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인 셈인데, 이점 때문에 아직 광고에 대한 규제도, 허위기만 광고에 대한 적정한 심사기준도,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면역성도 없는 분야다.

그러나 투자 역시 하나의 소비다. 증권은 고관여(high involvement) 상품이라 소비자들이 함부로 부화뇌동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광고의 영향을 받는다. 증권사의 ‘서비스’ 선택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먼저 서점가에 나가 보라.

서점가에는 초보자의 주식투자법에서부터 주식시장 동향과 분석까지, 시장단기예측에서 세계시장과 세계경제 전망까지, 다양한 책이 구비돼 있다. 책을 읽고 지식 무장을 하고 나서는 편이 투자성공률이 높다. 재미있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은 일찌감치 주식에서 손을 떼고 그 경험을 책으로 퍼내 인세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